

경제 자료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주요 내용

전소영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 주요 내용

전소영 |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syjeon@kdi.re.kr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주권기관이자 최고입법기관으로, 북한 헌법 87조는 최고인민회의를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법을 제정하는 최고의 주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민공화국의 창건방침에 따라 1948년 8월 북한인민총선거에 의하여 창설된 최고인민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성되는데, 1998년 9월 제10기 회의 출범 이후로는 한차례의 정기회의만이 열리고 있다. 최고인민회의의 권한은 1994년 개정된 헌법에서 크게 강화되었으며, 주요 권한으로는 △헌법과 각종 법령의 채택·수정 △휴회중 상설회의가 채택한 법률의 승인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주석, 부주석, 정무원 총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과 위원,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과 위원, 중앙재판소·검찰소장의 선거 및 소환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승인 △국가 예산 승인 △각종 조약의 비준·폐기의 결정 등이 있다.

금년도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의제는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용에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1(2012)년 사업정형과 주체102(2013)년 과업에 대하여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1(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⑧ 조직문제 등이었으며,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을 법적으로 우상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였다. 둘째, 북한은 또한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이와 관련된 법령의 채택, 우주개발법 채택 및 국가우주개발국 설치 결정 등 3개 의안을 처리하며 국제사회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대결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셋째, 2012년 국가예산수입은 계획대비 101.3% 수행되었고 국가예산지출은 99.6%가 집행되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금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예산집행액 및 올해 예산액은 공개되지 않았고 북한은 각 항목별 비중만을 일부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재기용하며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하였다.

본 자료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금번 최고인민회의의 의제 및 2004년 이후 최고인민회의의 경제부문별 사업실적과 중점사업 내용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1. 주요 의제 및 내용

금번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에서는 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③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우주개발국을 내움에 대하여》를 채택함에 대하여 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101(2012)년 사업정형과 주체102(2013)년 과업에 대하여 ⑦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1(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102(2013)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⑧ 조직문제 등 8개의 주요의안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중 조직문제를 제외한 7개 의안들은 대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1998년 제10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부터 올해 4월에 개최된 제12기 제7차 회의까지의 의제를 정리·비교 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2004년 제11기 제2차 최고인민회의부터 제12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까지의 최근 10년 간 경제부문별 사업실적과 중점사업 내용은 부록에서 제공한다.

<표 1> 역대 최고인민회의 의제 (1998.9~2013.4)

	회 의	의 제
1998.9	제10기 제1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사회주의 헌법」 개정 국가지도기관(최고인민회의) 선거
1999.4	제10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년 예산집행 결산과 1999년 국가예산 승인 「인민경제계획법」 채택
2000.4	제10기 제3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9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0년 국가예산 승인 「교육법」, 「대외경제중재법」, 「민용항공법」 채택 사회안전성을 인민보안성으로 명칭변경 북러간 조약 비준
2001.4	제10기 제4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1년 국가예산 승인 내각의 2000년 사업정형과 2001년 과업 발표 「가공무역법」, 「갑문법」, 「저작권법」 채택
2002.3	제10기 제5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1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2년 국가예산 승인 내각의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 발표 「국토계획법」 채택
2003.3	제10기 제6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3년 국가예산 승인 군사복무법, 기구법, 도시계획법, 하천법, 회계법 채택 승인

2003.9	제11기 제1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 국가지도지도기관 선거 • 핵문제에 관련한 외무성의 조치 승인
2004.3	제11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3년 사업정형과 2004년 과업 발표 • 2003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4년 국가예산 승인
2005.4	제11기 제3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4년 사업정형과 2005년 과업 발표 • 2004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5년 국가예산 승인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 보선
2006.4	제11기 제4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5년 사업정형과 2006년 과업 발표 • 200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6년 국가예산 승인 • 과학기술발전을 다그쳐 강성대국 건설 추동 보고
2007.4	제11기 제5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6년 사업정형과 2007년 과업 발표 • 2006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7년 국가예산 승인 • 김영일을 내각총리로 선출, 김영춘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2008.4	제11기 제6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7년 사업정형과 2008년 과업 발표 • 2007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 승인
2009.4	제12기 제1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 국가지도기관 선거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 2007년 예산집행 결산과 2008년 국가예산 승인
2010.4	제12기 제2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09년 사업정형과 2010년 과업 발표 • 2009년 예산집행 결산과 2010년 예산 승인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 채택
2010.6	제12기 제3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 총리 소환과 교체 •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선거 • 내각 구성원 교체
2011.4	제12기 제4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의 2010년 사업정형과 2011년 과업 발표 • 2010년 예산집행 결산과 2011년 예산 승인 • 내각 부총리 해임, 국방위원회 인민보안부장 임명,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보선
2012. 4	제12기 제5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 • 김정운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수위에 추대 • 내각의 2011년 사업정형과 2012년 과업 발표 • 2011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2년 예산 승인
2012. 9	제12기 제6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실시 • 광범기를 예산위원장으로 선출, 홍인범·전용남을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2013. 4	제12기 제7차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 •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 • 최고인민회의의 법령(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 공고화) 채택 • 우주개발법 및 최고인민회의 결정(국가우주개발국) 채택 • 내각의 2012년 사업정형과 2013년 과업 발표 • 내각의 2012년 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예산 승인 • 박봉주를 내각 총리로 임명

2.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 내용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영남대위원의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 수정·보충안과 금수산태양궁전법 채택에 대한 보고를 필두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위업을 법적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을 수정·보충하고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 것을 주장하며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생애와 업적이 집대성되어있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선군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선도하는 기치이며 대원수님들과 우리 인민의 혈연의 정을 뜨겁게 이어주는 영원한 태양의 성지”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하는 것에 관해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인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으로 대대손손 빛내여가려는 천만군민의 절절한 소망은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를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하게 되었다.”라고 규정하며 김일성·김정일의 법적인 이상화를 통해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

3. 핵보유국 및 인공위성 제작발사국 천명

북한은 또한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의 법령 채택, 우주개발법 채택 및 국가우주개발국 설치 결정 등 3개 의안을 처리하였다. 이는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위의 안전들에 대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고 맞서 대결해 나가겠다는 결의를 대내외에 보여준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위의 핵보유국 및 인공위선 관련 의안은 지난 3월 31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채택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즉,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서둘러 개최한 배경에는 북한의 새로운 정책노선인 경제·핵무기건설 병진노선을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은 “자주적이고 정의로운 핵무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 공화국은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었다.”며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10개항의 결정서를 다음의 <표 2>와 같이 채택하였다.

〈표 2〉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서

내 용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적대시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증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관리, 핵시험의 안정성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 핵물질이 비법적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체계와 질서를 세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호상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 방지(핵확산 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10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다.

이 밖에도 북한은 우주개발법을 채택하고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총괄하는 중앙지도기관인 국가우주개발국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북한이 당당한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임을 강조하였다.

4. 2012년 예산집행 결산 및 2013년 예산계획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회의를 통해 「2012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13년 국가예산」을 심의·채택하였다. 내용을 살펴보면 올해의 사업과제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특별히 새로운 성과로 주목할 만한 것은 없다고 보여진다. 국가예산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경공업과 농업, 인민경제 4대 선행부문을 비롯한 산업부문에서 생산이 늘어났음을 강조하였고, 금수산태양궁전 등 기념비적창조물 건설에 예산이 사용되었음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사회보험 등 인민적 시책에의 예산 사용과 희천화력발전소와 같은 대규모 산업대상이 완성되었음을 논하였다. 북한은 2003년

제10기 제6차 회의 이후 전년도 예산집행액 및 올해 예산액은 밝히고 있지 않으며, 재정상 최광진대의원이 보고한 2012년 예산집행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12년 예산집행 및 주요내용

지난해 북한의 국가예산수입은 계획대비 101.3% 수행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10.1% 상승한 결과이다. 지방예산수입은 113.8%로 수행되었다. 한편, 북한의 2012년 국가예산지출은 전년대비 109.7% 상승한 99.6%로 집행되었다.

〈표 3〉 연도별 북한 예산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수입 증가율	3.1	3.2	2.5	13.6	5.7	15.1	7.1	5.9	4.0	5.2	6.3	7.5	8.7	4.1
계획대비 실적	102.4	100.3	100.5	100.9	-	100.8	97.5	100.2	101.6	101.7	101.3	101.1	101.3	-
예산지출 증가율	1.9	2.9	2.3	14.4	8.6	11.4	3.5	3.3	2.5	7.0	8.3	8.9	10.1	5.9
계획대비 실적	102.7	100.5	99.8	98.2	99.3	104.4	99.9	101.7	99.9	99.8	99.9	99.8	109.7	-

국가예산지출 중 주요 비목별 지출비율을 살펴보면 경공업과 농업, 인민경제 4대선행부문을 비롯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44.8%, 인민적시책과 사회문화시책 부문에 지출총액의 38.9%를 지출하였으며, 지출총액의 15.9%를 국방비로 지출하였다.

2) 2013년 예산책정 및 주요내용

북한은 2013년 국가예산수입과 지출에 대해 “나라의 전반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데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나갈수 있도록 수입과 지출규모를 편성”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예산수입은 지난해보다 4.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중 국가예산수입의 기본원천인 거래수입금은 3.5%, 국가기업이익금은 6.0% 증가하였고, 협동단체이익금은 5.3%, 감가상각금은 2.8%, 부동산사용료는 3.4% 증가할 것이라 예견하였다. 국가예산수입 총액에서 중앙예산 수입은 83%, 지방예산 수입은 17%를 차지한다.

북한은 국가예산지출도 2012년도에 비하여 5.9% 증액 편성하였다. 이중 석탄·전력·금속·철도운수부문은 7.2%, 농업·경공업부문은 5.1%, 기본건설과 대보수를 비롯한 기본투자는 5.8%, 과학기술부문은 6.7%, 교육부문은 6.8%, 보건부문은 5.4%,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부문은 3.7%, 체육부문과 문화부문은 각각 6.1%와 2.2% 증액 편성하였다. 국방비로는 지출총액의 16%가 편성되었으며 인민경제비, 인민적시책비, 관리비 등에 관한 구체적 발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의 <표 4>에서는 2013년도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정리하였다. <표 5>는 연도별 예산수입 증가율, <표 6>은 연도별 예산지출 증가율, 마지막으로 <표 7>은 연도별 국방비 지출 비중을 나타낸다.

<표 4> 2013년도 국가예산 수입 및 지출의 전년대비 증가율

	항목	전년대비 증가율(%)
수입	총예산수입	4.1
	거래수입금	3.5
	국가기업이익금	6.0
	협동단체이익금	5.3
	감가상각금	2.8
	부동산사용료	3.4
지출	총예산지출	5.9
	석탄·전력·금속·철도운수	7.2
	농업·경공업	5.1
	기본투자	5.8
	과학기술	6.7
	교육	6.8
	보건	5.4
	사회보험·사회보장	3.7
	체육	6.1
	문화	2.2

〈표 5〉 연도별 예산수입 증가율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예산수입	15.1	7.1	5.9	4.0	5.2	6.3	7.5	8.7	4.1
국가기업이득금	13.5	7.2	6.4	4.7	5.8	7.7	N.A	10.7	6.0
협동단체이득금	8.4	23.2	4.5	0.4	3.1	4.2	3.8	5.3	5.3
감가상각금	N.A	1.8	9.6	2.6	6.1	2.5	1.4	2.3	2.8
부동산사용료	N.A	12	5.4	3.1	3.6	2.0	0.7	1.9	3.4
사회보험료	3.0	141	15.1	1.1	1.6	1.9	0.4	1.7	N.A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표 6〉 연도별 예산지출 증가율

(단위: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예산지출	11.4	3.5	3.3	2.5	7.0	8.3	8.9	10.1	5.9
농업	29.1	12.2	8.5	5.5	6.9	9.4	9.0	9.4	5.1
경공업	N.A	N.A	16.8	N.A	5.6	10.1	12.9		
4대 선행	N.A	9.6	11.9	49.8	8.7	7.3	13.5	12.1	7.2
과학기술	14.7	3.1	60.3	6.1	8.0	8.5	10.1	10.9	6.7
사회적 시책	N.A	3.0	N.A	N.A	N.A	6.2	N.A	N.A	N.A
교육	N.A	N.A	7.0	4.2	8.2	N.A	N.A	9.2	6.8
보건	N.A	N.A	9.8	5.9	8.0	N.A	N.A	8.9	5.4
사회보험·사회보장	N.A	N.A	9.4	N.A	N.A	N.A	N.A	7.0	3.7
체육	N.A	N.A	N.A	N.A	N.A	N.A	N.A	6.9	6.1
문화	N.A	N.A	N.A	N.A	N.A	N.A	N.A	6.8	2.2

주: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표 7〉 연도별 국방비 지출 비중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편성	15.5	15.9	15.9	15.8	15.8	15.8	15.8	15.8	15.8	16.0
집행	15.6	15.9	16.0	15.7	15.8	15.8	15.8	15.8	15.9	-

5. 개혁인사 등용: 박봉주 내각총리 선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루어진 조직문제는 박봉주 내각의 출범을 알리는 인사 조치였다. 북한은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재기용함으로써 ‘핵개발, 경제발전 병진노선’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사 등용 결과를 살펴보면, 최영림대의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예부위원장으로 선출되어 내각총리에서 소환되었고, 박봉주대의원이 내각총리로 선출되었다. 김정각대 의원과 리명수대의원은 직무변동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에서 소환되었고, 김격식대의원과 최부 일대의원은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보선되었다. 태형철대의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소환되었고, 홍선옥대의원은 상임위원회 서기장으로 선거되었다. 회의에서는 또한 일부 내각성원들이 해임 및 임명되었다. 이러한 대대적인 인사개혁은 김정운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이 박봉주 내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내각총리와 부총리 명단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
총리	최영림	박봉주
부총리	로두철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직) 강능수 김락희 리태남 전하철 조병주 (기계공업상 겸직해제) 한광복 (전자공업상 겸직) 강석주 김용진 (前 교육위원회 위원장) 리승호 (新, 前 수도건설총국당책임비서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철만 (新, 前 평안북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新, 수도건설위원장 겸직)	로두철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겸직) 강능수 (前 문화상) 조병주 (前 기계공업상) 강석주 (前 외무성 제1부상) 리무영 (新, 화학공업상 겸직) 김용진 (前 교육위원장) 리철만 (新, 농업상 겸직) 김인식 (수도건설위원장 겸직) 전승훈 (前 금속기계공업상)

박봉주 내각총리는 1993년부터 당 경공업 부부장, 경제정책검열부 부부장, 내각 화학공업상을 지냈으며 지난 2002년 임금 및 물가 현실화, 기업의 경영자율권 확대 등의 개혁적 조치를 담은 ‘7·1경제관리 개선조치’를 이끈 인물이다. 그러나 이 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당과 군부 간 마찰로 2007년 4월 해임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박봉주가 개혁적인 사고를 가진 경제 관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속에서 북한이 기대하는 경제개혁의 효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부록] 최근 10년 간 최고인민회의 발표 경제부문별 사업실적과 중점사업 (2004~2013년)

<표 9> 전력부문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안변청년발전소, 삼지연지구 수력발전소 등 중소규모 발전소 신설
	2004년 중점사업	• 화력발전소 설비 대보수 • 수력발전소 효율제고대책 수립 • 냉원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레성강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홍주청년2호발전소, 태천4호발전소 등 대규모수력발전소 및 중소수력발전소 발전능력 확대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 화력발전소 설비보수, 수력발전소 구조물보수정비, 발전소 신설 • 2002년 대비 전력생산 1.5배 증가
	2005년 중점사업	• 지속적으로 발전소 개선보수 • 불합리한 전력계통 개조 • 새로운 계량계측수단 도입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내평2호군민발전소, 대각청년발전소, 승호철도청년발전소 등 20여개 발전소 준공
	2006년 중점사업	• 화력발전소 설비보수 정비 • 수력발전소 발전설비기술개조와 수력구조물보수사업 • 삼수발전소, 어랑천1호발전소, 원산청년발전소, 레성강1호발전소 발전능력 향상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삼수발전소, 어랑천1호발전소, 태천4호청년발전소, 홍주청년2호발전소 등 대규모 및 중소형수력발전소 완공
	2007년 중점사업	• 수력발전소의 타빈개조, 수력구조물보수, 화력발전소들의 설비보수와 기술개선에 힘을 집중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2008년 중점사업	• 대규모 수력발전소 조업을 앞당기고 현존 수력발전소들의 수차개조 사업을 적극 추진 • 화력발전소 설비보수와 석탄보장 사업 완수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모든 발전설비 만가동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수력발전소들의 완공 • 희천발전소건설의 빠른 진척으로, 2012년까지 완공 가능
	2011년 중점사업	• 발전설비들의 만가동과 만부하 보장, 송변전체계의 합리적 구성 •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 사용 • 희천발전소건설의 집중적 추진 및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의 급진적 추진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희천발전소의 준공 • 여러 대상의 발전소들의 완공
	2012년 중점사업	-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 화력발전소들의 설비대보수 진행 • 희천-평양 사이 송전선건설과 발전기 시운행을 성공적으로 진행
	2013년 중점사업	• 화력발전소의 생산성 확대 및 새로 완공된 발전소들의 운영 정상화 • 모든 발전기에 대한 컴퓨터화 실현

〈표 10〉 채취공업부문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등 생산정상화
	2004년 중점사업	• 채탄장 수 증가 • 연, 아연 정광생산 증산 • 귀금속과 희유금속광산 개발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 전년 대비 철광석 생산 88% 증가, 마그네사이트광 생산 86% 증가, 연 및 아연 생산 14% 증가
	2005년 중점사업	• 함남지구와 북부지구탄광에 투자 확대 • 전기아연생산 1.4배 증가 • 룡양광산, 대흥청년광산 등 마크네사이크광산 생산 정상화 • 국내탄에 의한 마그네사크링카생산 4.2배 장성 • 경소마크네사, 전기응용마크네사크링카 등 생산 증가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중요광산 개건확장 공사
	2006년 중점사업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광산, 혜산지구 광산 등 광산개건 현대화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은파광산의 채광 및 선광능력 제고
	2007년 중점사업	• 채탄장 수 확대, 석탄생산 증대 • 채탄장 확대, 필수자재와 막장장비, 탄부들의 로동보호물자 확보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2008년 중점사업	• 굴진을 선행시켜 기본굴진에 의한 탄량을 철저히 확보 • 채탄장 수 증가 • 선진적인 채탄방법 수용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석탄공업부문에서 석탄생산능력을 전망성있게 늘임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석탄생산능력의 증가
	2011년 중점사업	• 석탄생산 증대 • 석탄생산능력을 전망성있게 늘임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중요 탄광들의 정비보강
	2012년 중점사업	-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 석탄 및 시멘트생산 증대 • 생산 공정의 현대화
	2013년 중점사업	• 암질조건에 맞는 천공방법 채택 • 탄광작업의 기계화수준 향상 및 과학적인 생산지휘체계 구축

〈표 11〉 철도운수부문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
	2004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관차, 화차 생산 및 수리 • 철길 기술상태 개선 대책 수립 • 철도화물수송 전년대비 20% 증가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길구조물 기술상태 개선 • 9월10일배수리공장과 남포항 등 중요무역항의 능력확장공사 수행
	2005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차와 화차 수리 및 생산 • 철도화물수송량을 전년대비 20% 증가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 콩크리트침목, 철길부속품생산기지 등 신설 및 개선
	2006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길강도 높이고 전기기관차와 화차의 생산, 수리 정상화 • 가동대수 증가 및 수송조직, 지휘 강화로 철도화물수송량 증가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 철도운수와 육해운부문의 수송능력 확대
	2007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철길 조성사업 • 기관차, 화차생산과 수리 강화 • 현실에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체계 강화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 철길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및 기관차, 화차생산 기지 정비 보강
	2008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차, 화차 생산과 수리 강화하여 운영대수 증가 • 수송지휘에서 유일사령 지휘체계 확립 • 철도화물 수송량 정상화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 철도화물수송량을 늘이는 한편 철도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2011년 중점사업	-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2012년 중점사업	•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어야 함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남포 철길개건 • 철도수송능력 및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2013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길보수 집중을 통한 철길강도 보강 • 화물수송계획의 수행 • 수송지휘의 현대화·정문화 추진

〈표 12〉 금속공업부문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아연 생산 전년대비 76% 증가 철광석 생산 전년대비 46% 증가
	2004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설비개선, 대보수 선철생산은 2.5배, 압연강재생산은 5배 증산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철정광생산은 1.9배 증가
	2005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등 철광석 생산 증가 및 국내연료에 의한 철생산 확대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김책제철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초고전력전기로 조업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락원기계연합기업소, 신평향주철직장, 단천제련소,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등 개건현대화 철생산공정과 마그네사링크카생산공정이 주체적으로 이루어져 금속공업과 내화물공업 분야에서 공업의 자립성 강화
	2006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적인 철생산 기지들의 생산 정상화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경제련소와 단천마그네사 공장에 새로운 생산공정 마련
	2007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은률광산 등 철광산들의 채굴, 운반, 선광설비를 갱신 철생산기지 정비, 보강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생산 활성화 국방공업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철강재 수요 보장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주요 생산공정 기술개선
	2008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철 생산방법과 기술공정 완성 설비 정비, 보강하여 생산 정상화 금속공장의 물동수송 문제 해결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 철생산의 비폭스화를 실현하는데 중점 생산공정의 기술개선, 현대화를 적극 추진 이미 마련해놓은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금속공장들의 주체철생산체계가 완성 새로운 합금강생산기지 조성
	201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적인 철생산 체계와 방법의 개선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철생산체계가 보다 완성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기술개선 회천정밀기계공장의 연료뿔프분공장 최첨단수준으로 개건된 것을 비롯 기계, 전자공업부문 중요공장들의 현대화
	2012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선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정상화 화학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생산보장 화학섬유와 합성수지생산을 늘여 경공업원료의 국산화 비중 높임 단천지구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확대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철·제강소 현대화 주체철생산기지 완비
	2013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설의 현대화, 과학기술에 의거한 채굴방법 강구

〈표 13〉 농·수·축산업부문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량종자, 대홍단식감자농사방법, 두벌농사방법 등 선진영농방법 도입 농업구조개선과 영농공정과학화 은정축산전문협동농장과 신원군 계남목장, 원산시업소목장 등 건설 홍주닭공장, 광포오리공장 개건 확장
	2004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관철 영농물자보장사업과 농촌경리관리운영방법 개선 콩, 감자, 고구마 생산성 향상 대책 강구 트랙터, 감자수확기, 콩탈곡기 등 새로운 농기계 도입 면바다어업, 세소어업, 양어 적극 발전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두벌농사, 감자농사 수행 백마-철산물길공사와 금성간석지내부망공사 진행 전년대비 콩생산량 3배 증가 감자, 고구마 가공기지 건설 동해지구 수산기지에 인공배양장 건설, 자원증식장 확장
	2005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종자혁명방침, 적지적작원칙, 두벌농사,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 관철 알곡파종면적 확대, 흙보산비료와 퇴비 생산 증가 단위당 알곡수확고 증대 선진영농방법, 새로 개발된 농기계 도입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마-철산 물길 완성 광포오리공장 개건현대화 홍주닭공장, 북창오리공장 등 현대적 축산기지 건설
	2006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종자혁명방침, 적지적작원칙, 두벌농사 관철 감자농사, 콩농사, 기름작물과 목화 재배 우량품종교체로 과수생산 증대 선진빵나무 재배방법 도입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확품종의 새 종자 보급 선진영농방법과 새 농기계 도입 원산목장 완공 구성닭공장, 광포오리공장, 가공직장 개건확장
	2007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적지적작 원칙 관철 거름원전을 최대한 동원하여 질 좋은 퇴비와 흙보산 비료를 생산, 시비 부침땅 면적 확대 : 대계도 간석지를 비롯한 간석지의 제방보강과 내부망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새땅찾기를 적극 실시 물길공사와 토지정리 추진 닭공장, 오리공장들을 비롯한 축산기지의 실속있는 운영 보장 키낮은사과나무 발면적 확장 뽕나무밀식재배면적 확대하고 뽕발비배관리를 과학적으로 실시하여 누에고치 생산 증가 어로방법, 고기배, 어구를 갱신, 바다나무량식과 재배어업을 발전시켜 수산물생산 증대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수확 품종 널리 도입 미루벌 물길공사 활발히 진행 평북도 돼지공장을 비롯하여 사리원, 강계, 함주 등지에 현대적 축산기지 건설
	2008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농업혁명방침, 다수확 품종들을 적지적작의 원칙 관철 선진적인 영농기술과 영농방법 널리 보급, 일반화 현대적인 닭공장, 오리공장들과 돼지공장들, 경공업공장들에 만부하를 걸어 인민소비품 생산 증대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전선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면서 종자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 • 수산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 것 • 수매량정부문에서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을 정상화하고 상업부문에서 상품공급사업을 개선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
	201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곡생산목표 달성 • 농산과 축산, 과수와 축산의 순환식 생산체계 확립 • 현대적 축산과 과일생산기지들의 생산 활성화를 통한 축산물, 과일, 알곡생산 증대 • 과수업발전에서의 변혁 • 원양어업, 세소어업, 바다가양식의 대대적인 도입과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적인 대동강과일종합기공공장 • 식료공장 기술개선
	2012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공업과 함께 농업부문에 력량을 총집중 •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임 •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세워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과일생산기지들의 생산을 활성화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확 우량품종 배치면적의 확대 • 포전별 전자지도를 구축함으로써 포전별 농장물재배기술 및 방법 과학화
	2013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곡생산계획 완수 • 고리순환형생산체계의 구축 • 분조관리제 실시

〈표 14〉 과학기술부문

2004년	2003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월5일자동화기구공장과 모란봉자동화기구공장에 컴퓨터조종반생산공정 신설 과학기술발전 국가중점대상과제 수행 신형 트랙터 개발
	2004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용부문 과학연구기관 역할 강화 국제적인 과학기술교류사업 강화 선진과학기술 도입
2005년	2004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 관철, 과학기술발전계획과제 수행
	2005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올해 국가중점대상과제수행에 역량 집중 "2월17일과학자, 기술자돌격대" 활동 강화 과학기술행정사업과 규격화, 표준화 사업, 품질감독사업 강화
2006년	2005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중점대상을 비롯한 1,050여건의 과학기술발전계획과제 수행
	2006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 관철
2007년	2006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발전 국가중점대상과제들이 성과적으로 수행 수많은 발명과 과학연구성과들이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기여
	2007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인만큼 과학기술발전과제들을 완수 핵심기초기술, 첨단과학기술 개발 인민경제의 정보화 실현을 위해 소프트웨어제품들을 적극 개발, 보급
2008년	2007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2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의 주요 과제 수행 주요 과학기술성과들이 생산의 활성화와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에 이바지
	2008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새로운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착수 첨단과학기술 부문의 토대 구축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을 현대화, 정보화 국가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경제발전에서 과학기술 발전의 기여를 높일 웅대한 설계 도라고 평가
2010년	2009년 사업실적	-
	2010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초기술과 중요부문 기술공학을 급속히 발전시킬 것 생산과 기술을 밀착시켜 자체의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능력 향상 최첨단 돌파전을 과감히 진행
2011년	2010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민경제 모든부문에서의 CNC화 핵융합의 성공 첨단기술제품의 개발 생물공학발전에서의 큰 진전
	2011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핵심기초기술(정보기술, 생물공학)과 첨단과학기술분야의 획기적 발전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적 문제들의 원만한 해결
2012년	2011년 사업실적	-
	2012년 중점사업	-
2013년	2012년 사업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대동강타일공장 생산공정의 CNC화 실현 첨단기술제품들의 연구제작이 가능한 생산기지 구축
	2013년 중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 첨단기술제품의 대대적 개발